

#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지도 자료 안내

## 1. 자료 개관

이 자료는 학교 내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대화 문화 확립을 위한 또래 간 대화 지도용으로 개발되었다. 특히, 이 자료는 동영상 주제를 구성하여 학생이 개인적 관심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업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수업 상황에 따라 교사가 적절한 주제의 영상 자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학습지(학생용, 교사용)를 함께 개발하였다. 각 영상별 주제 및 구성 방식, 학습지의 내용, 소주제별 개발 의도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 2. 동영상별 주제 및 제목

구분	주제	제목
I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끝까지 들어, 줘.” ↔ “하고 싶은 말이 뭘데.”
II	공감적 경청	“내 말 듣고 있니?” ↔ “응? 어, 어…”
III	비언어적 표현	“왠지 기분이 나빠…” ↔ “너무 예민한 것 아냐?”
IV	공격적인 말	“네 말은 나를 아프게 해.” ↔ “그냥 장난인데.”
V	대화 구도 인식 차이	“너랑은 말이 안 통해.”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 3. 동영상 구성 및 등장인물

### 1) 동영상의 구성

단계	내용
도입	- 주제와 관련된 상황을 아나운서가 소개 - 교사가 학습 주제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게 함.
문제 상황	-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청소년의 또래 간 대화 장면 제시 - 학습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함.
원인 해설	- 아나운서가 문제 상황에서 등장한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에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찾아 설명함. - 학습자들이 문제의 원인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개선 상황	- 문제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방식으로 대화하는 상황 제시 - 학습자들이 바람직한 대화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함.
마무리	- 학습 주제와 관련된 바람직한 대화 방식을 다시 언급하며 강조

※ 주제에 따라 동영상 구성 방식에 일부 차이가 있음.

## 2) 등장인물

태호(남자)	성규(남자)	민우(남자)	민하(여자)	희주(여자)	유진(여자)
					
-현실적 -약간 자기중심적임.	-감정적 -솔직한 성격	-소심하고 분쟁을 싫어함. -해야 할 말은 하는 성격	-뚝 부러지는 성격 -관계 지향형 성격	-직접 욕하지 않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임.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함. -느긋한 성격

## 4. 학습지 내용 구성

구성 요소	내용
학습 목표	- 해당 영상 자료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 제시
생각 열기	- 영상을 보기 전에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기
문제 상황 파악하기	- ‘문제 상황’ 영상을 본 후, 친구들 간의 대화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생각해 보기
바람직한 대화 방식 찾기	- ‘개선 상황’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
적용하기	- 해당 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한 대화 방식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태도 기르기

## 5. 자료의 개발 의도 및 취지

### 1)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

□ 개발 의도와 취지: 이 자료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화 순서를 바꿔가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드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대화 방식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의 중요성

대화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서로의 역할을 계속 바꾸어 가면서 이루어진다. 즉,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자가 청자가 되고 청자가 화자가 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와 같이 대화는 계속적인 대화 순서의 교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고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경우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다.

#### □ 적절한 대화 순서 교대의 특성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해 가며 대화하는 것은 대화의 기본적 태도에 해당한다.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순서 교대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한 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없다. 대화 상대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끼어드는 것은 대화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일이다.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과의 대화에서 대화 순서 교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익혀야 일상생활에서 또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대화할 때 갑자기 끼어들어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담긴 상황에서 시작한다. 문제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끼어드는 등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친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을 제기하여, 대화 순서를 적절히 교대하지 않을 경우 대화 참여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원인 해설과 개선 상황 제시를 통해 적절히 대화 순서를 교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무리에서는 대화를 캐치볼에 비유하여 대화는 대화 순서의 계속적인 교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2) 공감적 경청

□ 개발 의도와 취지 : 이 자료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거나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듣기와 말하기 방식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은 단순히 듣는 방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공감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면서 들으려는 대화 참여자의 태도에 대한 것이며, 공감적으로 경청하는 과정에서의 반응은 곧 말하기로 이어진다. 결국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고, 상대방처럼 느끼고 생각해 볼 때 가능한 것이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려는 태도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지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말하려는 태도는 상대 참여자에게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한다.

### □ 공감적 경청의 특성, 실태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공감적으로 듣는 것은 대화에서 상대 참여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기본적 태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본적 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는 결국 상대 참여자의 입장에서 감정, 사고 등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자기중심적 말하기에 불과하며, 참여자가 서로 자기중심적 말하기를 하는 것은 결국 대화가 아니라 대화로 위장된 독백일 뿐이다. 청소년들의 대화 실태를 조사해 보면 친구가 휴대폰을 보며 건성으로 대답할 때,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자신의 실수를 감싸주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공감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청소년들이 공감적 경청을 의사소통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특히 또래 집단과의 대화에서 공감적 경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공감적 경청의 방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일상생활에서 또래 집단 의사소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말에 집중하지 않아 속상해하는 진행자의 모습이 담긴 상황에서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의 시작이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한다. 또 일상의 학교생활에서 상대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상대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는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상대방의 말을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무리에서는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공감하는 것은 ‘안아 주기’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공감은 상대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감싸 체온을 나누는 것과 같은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3) 비언어적 표현

□ 개발 의도와 취지: 세 번째 자료는 일상 대화 상황에서 간과하기 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래 대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며, 그 소통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살펴봄으로써 자신의 언어생활을 성찰해 보도록 한다.

#### □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

일상적인 대화 상황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사용과 의미 전달력은 언어적인 표현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Birdwhistell(1970:89)에 따르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 문화권에서도 대화의 35%만이 말로써 이루어지고 나머지 65%는 비언어적 수단에 의하여 소통된다. 또 Scherer(1982:65)는 의사소통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7%만이 언어에 의해 전해지는 반면, 메시지의 93%는 목소리의 크기나 얼굴 표정에 의해 전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비록 모든 의사소통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지는 않을지라도,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언어적 표현만으로 온전히 소통될 수 없음을 분명히 뒷받침한다.

####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성, 실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교실에서의 교육으로 충분하지 않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식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사회의 환경을 통해 내면화되며 개인적·문화적 속성이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언어적 표현은 본능적으로 습득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되기 쉽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은 일정한 양식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상황이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청소년들은 일상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전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관하여 성찰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 □ 자료 내용의 개괄

이에 세 번째 자료는 갑자기 날아온 축구공에 머리를 맞은 아나운서를 향하여 세 명의 학생이 '죄송해요!'라는 사과의 말을 각양각색의 말투로 전하는 상황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하여 비언어적 표현의 의미가 청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일상의 학교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행위(눈빛, 말투, 시선, 행동 등)가 서로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화자와 청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결과가 친구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무리에서는 '대화는 퍼즐'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말'뿐만이 아니라 몸동작이나 눈빛, 말투 등 비언어적 표현까지 제대로 맞춰져야 비로소 완성됨을 강조한다.

#### 4) 공격적인 말

□ 개발 의도와 취지 : 이 자료는 비하, 조롱, 저주, 욕설 등 상대를 공격하는 부정적 언어 표현의 폐해를 인식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목적이다.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일상 대화에서 사용하는 공격적인 말이 상대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는지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고 자신의 공격적 언어 습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 공격적 언어 표현의 유형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공격적인 언어 표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상대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해 “너는 어떡하다.”라며 함부로 단정하는 표현이다. 예를 들면 “너는 게을러.”, “너는 나쁜 아이야.” 등과 같이 객관적인 관찰에 바탕을 둔 표현이라기보다는 주관적인 방식으로 상대를 단번에 규정하는 말들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상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언어 표현이다. 특히 상대의 능력, 성품, 외모 등에 대해 놀리는 말을 하는 것이다. 셋째, 상대를 저주하는 언어 표현이다. “너 인생 망한다.”와 같이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아 말을 하는 것이다. 넷째, 상대를 차별하는 표현이다. 대표적인 차별 표현으로는 성(性), 장애, 지역, 민족, 인종 등을 차별하는 말들이 있다.

#### □ 공격적 언어 표현의 폐해

상대를 공격하는 언어 표현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 특히 개인의 자아 개념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아 개념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의 말에 의해 형성된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공격적인 말을 할 경우 민감하게 반응

하여 자아 개념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력하게 받는다. “너는 어때”라는 단정적인 표현은 개인의 능력이나 성품을 특정한 틀 안에 묶어매는 기능을 하며,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은 비속어와 욕설과 함께 사용되어 자아 개념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저주하는 표현은 ‘자기실현적 예언’의 기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자아 개념이 부정적으로 형성되면 의사소통 방식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된다. 즉, 청소년기의 공격적인 말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자아 개념과 부정적 의사소통 방식은 개인의 삶에서 대화의 즐거움을 훼손하게 된다. 청소년 의사소통 문화의 이러한 부정적인 양상이 만연하게 되면 공동체의 의사소통 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발표를 망친 후 모두가 모여 대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발표 자료를 늦게 준비한 여학생과 발표 준비가 부실하여 실수를 한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주로 원망 섞인 공격을 받는다. 공격적인 말에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부정적 언어 표현을 섞어서 구성하였다. 모두 친구들의 대화를 보며 공격적인 언어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개선 장면으로 구성하지 않고 반성적 성찰을 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말을 들은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는 장면을 담았다. 무심코 한 말이 상대의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5) 대화 구도 인식 차이

□ 개발 의도와 취지 : 이 자료는 일상 대화에서 상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제작되었다. 일상의 대화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다양한 오해 가운데에는 발화자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들이 많다. 이는 대부분 화자의 의도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집중함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화는 사소한 듯 보이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자료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대화에 있어 상호적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 □ 대화 구도 이해의 중요성

대화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다.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상호작용의 작업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함을 종종 발견한다.

“내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면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이해했다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오해가 발생하여 싸움이 일어났을 경우 종종 듣게 되는 대화이다.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대화 맥락에서 서로의 이해를 배려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에서 해석함으로 생긴 오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대화에서 중요한 점은 화자는 청자의 이해를 생각하여 발화해야 하며, 청자는 화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부재하거나, 화자가 충분히 이해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청자가 화자의 암묵적 상황정보를 무시했을 때, 오해는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해가 사실상 사소할 수 있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대화 방식을 지속할 경우,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훈련해야 할 대화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겠다.

#### □ 대화의 구도 특성 및 실태

의사소통의 구도란 의사소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그 구조를 미리 예상하는 틀을 의미한다. 이 틀에 따라 이해와 오해가 발생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농담으로 해석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진담으로 해석되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는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방식이며,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내는 방식이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구도를 정확히 맞추고 대화를 진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오해를 줄이고 좀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임의로 대화의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부분은 지속적으로 상호 질문하면서 구도를 맞춰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한국화법학회 화법 용어 해설 위원회 (2014) 화법 용어 해설, 박이정.

#### □ 자료 내용의 개괄

이 자료는 대화 맥락에 대한 참여자의 오해로 인해 대화 구도가 서로 달라 생기는 오해의 장면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내용은 반장 역할에 대한 인식을 서로 달리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해의 장면이다. 성규는 이전의 반장의 업무에 대한 질책을 마음에 두고, 반장이 무엇이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반비 사용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민하는 반장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과거의 지적은 그 당시의 일의 진행을 말한 것뿐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반장의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 차이, 그리고 과거 사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속적인 오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태호와 희주는 충고와 비난의 구도를 다르게 가지고 있다. 희주는 태호를 걱정하여 한 말을 태호는 자신을 비난하는 말이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의 차이는 결국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합치시켜야 한다. 대명사 “저기”보다는 명사인 “영화관”이 명료하듯이,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치하기까지 서로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후의 해결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